



2016년 03월 2주차

■ 연구원 소식

○ 2016년 소모임 영화 단체 관람

: 2016년부터 새로 기획한 소모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역사영화소모임(소모임 이름 : 心惹)에서 '귀향'을 단체 관람하였습니다. 3·1절이라는 특별한 날에 모인 8분의 연구원 회원과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연구원 동아리 활동에 많은 회원과 함께 하고 싶은 바람 전합니다.

○ 정경명 이사 방문

: 연구원 정경명 이사와 5분의 지인들이 연구원을 3월 1일 연구원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변주승 상임이사가 연구원이 갖고 있는 의미와 진행하고 있는 사업 등에 전반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명이 끝난 뒤 연구원 공간에 대한 소개시간을 가졌습니다.



○ 2016년 연구원 소모임 안내

: 2016년도 연구원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소모임 지원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2개의 소모임 계획을 안내해 드리오니 관심있는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소모임을 직접 만들고자 하시는 회원께서는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소모임

- 동아리명 : 역사영화동아리 '심야(心惹) 영화'
- 활동목적 : 역사를 주제로 한 영화를 통해 회원 간 생각을 공유
- 구성인원 : 회장, 총무 각 1인 / 5명 이내
- 세부계획 : 전북권 내 영화관에서 단체관람 후 토론
해당 영화 비 상영시 연구원 내 프로젝트 활용하여 관람
- 활동계획

일 시	내 용	비 고
4월 19일	잘 돼 갑니다 / 효자동 이발사	
5월 18일	꽃잎	
6월 25일	태백산맥	
7월 中	답사(추후 계획공지)	
8월 15일	일본의 가장 긴 하루 / 신들러 리스트	

■ 두 번째 소모임

- 동아리명 : 인자요산(仁者樂山)
- 활동목적 : 등산과 답사를 통한 회원 간 소통의 장을 만들고 연구원 사업에 적극참여
- 구성인원 : 회장, 총무 각 1인 / 15명 이내
- 세부계획 : 전북권 500m 미만 산과 인근 지역 답사 및 산행
3월~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답사와 산행
- 활동계획

일 시	내 용	비 고
3월 26일	아리랑과 명량산(해발 51m / 김제시 죽산면)	
4월 13일	화암사와 불명산(해발 480m / 완주군 경천면)	
5월 21일	간재선생 유지와 계화산(해발 244m / 부안군 계화면)	
8월 20일	붕어섬과 국사봉(해발 475m / 완주군 구이면)	
9월 24일	망해사와 진봉산(해발 72m / 김제시 진봉면)	
10월 22일	섬진강과 옥출산(해발 276m / 순창군 풍산면)	
11월 19일	군산저수지와 청암산(해발 118m / 군산시 회현면)	
12월 17일	썩고개와 천잠산(해발 159m / 전주시 삼천동)	

○ **연구원 해외역사탐방 실시**

: 연구원 기획사업으로 해외역사탐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 하순에 5박 6일간 예정되어 있는 블라디보스톡과 하바롭스크 일원 답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예상경비가 확정되는 다음주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 **김진소 신부님 연구원 방문**

: 3월 3일에 연구원 고문이신 김진소 신부님께서 연구원을 방문하셨습니다. 단독 건물로 이전한 연구원 공간을 상임이사의 안내로 둘러보았으며, 이후 실무자 및 관계자를 격려해 주시면서 점심식사를 함께 나눴습니다.



○ **윤상원 교수 연구원 방문**

: 3월 1일자로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에 임용되신 윤상원 교수가 3월 3일에 연구원을 방문하셨습니다. 2016년 연구원 기획사업으로 진행중인 6월말 해외문화탐방과 관련하여 답사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회원 소식

○ 박해성 회원 장녀 혼인

: 박해성 회원의 장녀 박현정 양의 혼인이 있습니다. 날짜와 장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함께 축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날짜 - 2016. 03. 19(토)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신도림 웨스턴베니비스 7층 다이너스티홀

(주소 : 서울 구로구 구로동 3-25 신도림테크노마트 7층)

○ 이미경 운영위원

단비심리상담센터 개소

: 우리 연구원 운영위원인 이미경 박사께서 동전주 우체국 4층에 단비심리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십니다. 다음주 예정된 개소에 앞서 한명수 운영위원과 최우영 사무국장이 3월 4일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03월 07일(月) : 주간회의, 5.18기념재단 협약식
- 03월 11일(金) : 법인업무보고 / 운영위원회

■ 옛 詩와의 만남

尋隱者不遇 은자를 찾았다가 만나지 못하고

松下問童子 소나무 아래에서 동자에게 물어봄에
言師採藥去 대답하기를, “스승은 약을 캐러가셨으니,
只在此山中 다만 이 산중에 계실 터인데
雲深不知處 구름 깊어 계시는 곳 알 수 없나이다.”

■ 작자소개

- 가도(賈島; 777~841). 당나라의 시인으로, 자(子)는 낭선(浪仙). 호는 갈석산인(碣石山人). 처음에는 중이 되었다가 환속하였다. 시 짓기에 전념하여, 한유(韓愈)에게 알려지게 된 '퇴고(推敲)'란 고사의 주인공으로 유명하다.

■ 감 상

- 이 시 또한 한 폭의 그림이다. 저 멀리 푸르른 하늘 아래 구름이 드리웠고, 다시 그 아래에 녹음 짙은 산들이 커다란 배경을 이루고 있는 그림이다. 그림 앞쪽에는 끊어질 듯 이어진 오솔길 끝자락에 노송 한 그루가 기우뚱하게 솟았다.

약을 달이는 연기가 모락모락 이는 가운데, 노인 한 사람과 동자 하나가 마주 섰다. 구부정한 자세로 서 있는 노인을 향해 동자가 두 손을 모은 공손한 자세로 말씀을 올리는 정경이다.

깊은 산중에서 연기만을 보고 벗을 찾아온 노인이 바로 작자 가도이다. 동자는 은자로 사는 친구의 제자이다. 선생의 처소를 묻는 가도의 질문에 동자가 답하는 내용이 둘째, 셋째, 넷째 구절이다.

이제 가도에게 남은 것은 기다림 뿐이다. 가도는 느긋한 기다림 속에서 이렇게 한 폭의 그림으로 시를 지어냈다. 자신도, 동자도, 보이지 않는 친구까지 은자로 숨겨 함께 그림이 되었다. 시 가운데 그림이 있다는 '시중유화(詩中有畫)'란 말이 실감나는 작품이다.

■ 역사속의 오늘

◆ 1960년 3월 15일, 김주열과 7인의 10대

이승만 정권은 1960년 3월 15일로 예정된 제 4대 정·부통령 선거 훨씬 전부터 치밀한 부정선거를 준비했다. 내무부장관 최인규는 이승만과 이기붕이 전체득표율 85% 이상을 확보케 위하여 사전투표에서 먼저 40%를 확보하고, 정식투표에서도 3인조, 5인조 투표를 조장의 감시 아래 감행하게 하여 다시 40%를 확보하도록 각 행정기관에 지시했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폭로한 부정선거 방식은 4할 자유당 사전투표, 3인조·5인조투표, 유권자 명부조작, 투표함 바꿔치기, 투표장 내 환표, 야당 참관인 축출 등이었다. 키보드와 종편의 나레이션을 통해 벌어지는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지만 당시 민중들의 분노는 다르지 않았다. 시민과 학생들은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 기도에 맞서 2월 28일 대구지역 고등학생 시위를 시작으로 저항에 나섰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유세에 못 가게 하기 위해 강제 등교시킨데 반발하여 일어난 이날 시위는 경북고, 대구고, 경북사대부고 등에서 1200여 명이 참가했고 12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된다.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학생 시위였다. 이어 3월 8일에서는 대전에서, 10일은 충주에서, 14일에는 부산의 8천여 고등학생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났다.

결국 3월 15일 선거날 눈 뜨고 볼 수 없는 부정선거에 분노한 항구도시 마산에서 유혈참사가 벌어진다. 오전 10시 부정선거 무효를 선언한 야당 인사들은 분노하는 시민과 합세하여 시위대를 형성, 마산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해가 누엣누엣 기울 무렵에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며 공방전을 벌였다. 부정선거의 결과물로 개표가 진행중이던 마산시청 앞에 집결한 시위대는 경찰의 발포로 총탄과 직격 최루탄에 생떼같은 젊은이들이 쓰러져갔다. 시신과 부상자들은 속속 병위로 옮겨졌다. 이 때 참으로 황망한 일이 벌어진다. 병원에 들이닥친 경찰들은 시신들의 호주머니에 '불온문서'를 집어넣고 그들이 빨갱이들이라고 우겼다. 협조(?)를 거부하는 병원장에게는 권총까지 들이밀었다고 한다. 그 종이에선 빨간 글씨로 인민공화국 만세가 쓰여져 있었고 피도 묻어 있었다. 그러나 머리에 총을 맞은 김용실의 뒷주머니에서 나온 종이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이 이상했던 검사는 간호사들에게 물었다. 그때 간호사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경찰이 원장님한테 빠라가 주머니에서 나왔다고 검안서에 적으라고 했는데 원장님이 거부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고 하는 발뺌이 아니었다. 한 목소리로 세상에 분노할 때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드디어 용트림을 시작한다는 진리가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3.15 하면 김주열의 최루탄 박힌 참혹한 모습만 떠오르지만 그날 시위에서 열 두 명이 죽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8명이 10대였다. 몽고아이스케키집 아들 마산상고 1학년 김용실, 구공탄 장수 아버지를 도와 리어카를 밀면서 야간 중학교라도 가겠다며 밝게 웃던 김영호, 홀어머니 밑에서 근근히 고학하며 마산고등학교 졸업장을 거머쥔 지 며칠 안된 김영준, 중학교 졸업 후 무능력한 아버지를 대신해 가방을 버리고 기계를 잡았던 전의규. 모두가 새파랗던 청춘들이었다. 대한민국 경찰은 그들을 쏘아 죽이고 그 호주머니 안에 불온문서(?)를 집어넣었고 누가 내 아들을 죽였느냐며 경찰서에 찾아온 엄마의 손에 쇠고랑을 채워 감옥에 보냈다.

아래는 고은 시인의 만인보 중 당시 사망한 김영호의 아버지 김위술의 심경을 노래한 시이다.

나는 하루 150환을 버는 막일꾼이올시다 구공탄 배달하는 막일꾼이올시다
허위허위 비탈길 오르면
한겨울에도 내 몸에서 하얀 김이 한 소쿠리씩 피어납니다

나는 구공탄 친구올시다
나는 구공탄 쓰는 언덕배기 가난한 집들 친구올시다

내 자식놈은 야간학교 고학생이올시다
김영호올시다 구공탄 배달 김위술의 아들 김영호올시다

마산 남성동 파출소 찾아가
어느 놈이 내 자식 때려죽였느냐 어느 놈이 내 자식 죽였느냐고
부르짖는 내 마누라마저 수감 채워 형무소 보낸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이올시다

내 자식 총 맞은 뼈 그대로 땅에 묻었습니다
마누라는 콩밥 먹고 나왔습니다 정신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구공탄 리어카 끌고 오르막길 오르고 내리막길 내려갑니다

영호야
영호야
영호야
속으로 불러봅니다
소리내어 불러봅니다
오늘 빈 리어카하고 나하고 비탈길 굴러버렸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나는 자식 잃은 막일꾼이올시다

56년 전 항구도시 마산에서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소박한 저항으로 시작된 젊은이들의 외침에 총칼로 화답한 이들의 최후는 역사책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들이 만든 역사를 잇는 순간, 다시 어제가 시작될 것이란 것은 명확하다. 잊느냐 기억하느냐 선택은 우리의 몫이지만 결과는 후대의 몫임을 기억하자.